

01 교회소식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되어

거룩하고 흠 없는, 단아하고 정숙한 영육 간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되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중에 거하길...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03 기획특집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04 간증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눈의 이상 증세가 사라지고 작은 글씨까지 또렷이 보게 되며, 다리 통증이 사라져 걷고 뛰게 되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63호 2022년 3월 6일(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작정 다니엘철야, 3월 7일~27일

오는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작정 다니엘철야'가 '2022년 기도제목, 성전 이전, 은사 집회'라는 주제 아래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진행된다.

특별히 '작정 다니엘철야' 기간 동안 이 원장은 은사 집회(3월 25일 금요일예배)를 앞두고 접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랜선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3월 7일, 14일, 21일) 오전 11시에 인도한다.

우리 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금요일은 금요일예배) 진행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2021 각 부문 우수상 시상

지난 2월 27일 주일 저녁예배 시 '2021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여 교세 부흥을 이루었거나 각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일꾼들이다.

이날은 총 21명이 교구의 지역장·조장·구역장과 전도, 봉사대, 상근부서 등의 부문 대표자로 수상했다.

지역장에는 김혜선 권사(1대대 6교구), 박영준 장로(2대대 9교구), 정혜순(3대대 15교구), 장영숙 권사(중국 2교구), 조장에는 최혁수 장로(2대대 9교구), 임혜란 권사(3대대 15교구), 주계화 집사(중국 3교구), 구역장에는 김옥희(1대대 3교구), 송송자(1대대 6교구), 이은혜(2대대 7교구), 강상구(2대대 9교구), 김연(3대대 15교구), 김옥자(3대대 16교구), 최옥자(중국 2교구), 왕홍령 집사(중국 3교구)가 수상했다.

전도 부문의 장숙방(중국 3교구) 집사 외에 김은숙 권사(중국 3교구 부장), 유영민 집사(만민봉사대 주차대), 주진경 권사(해외선교국), 이종우(GCN방송), 고경석 집사(우림복)가 수상해 상패와 부상이 전달되었다.

### 전진수 형제, 레슬링 아시아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지난 2월 6일, 전남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2022 레슬링 아시아주니어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우리 교회 1청년선교회 전진수 형제(한국체육대학교)가 70kg급 자유형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진수 형제는 경기를 3일 앞두고 훈련하던 중 왼쪽 눈 주변이 2.5cm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주변에서 경기 참가를 만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대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경기에 임한 결과 아시아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 주님의 신부는

이재록 목사 '잠언 강해' 중에서

1.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2.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해 모두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발합니다.
3.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자태를 갖춥니다.
4.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5.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압니다.
6. 눈망울이 맑고 빛이 납니다.
7. 점잖고 겸손하며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8. 의복은 단정하고 맵시와 솜씨가 있으며 우아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9. 정결하고 단아하며 정숙합니다.
10.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11.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믿음을 가집니다.
12.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13.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뱀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14. 성령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의심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15. 온 집에 충성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양보, 희생, 봉사합니다.
16.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17. 선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 다니엘 세 친구의 선(善)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다니엘 3:17~18)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세 차례나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게 되지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1차 침략했을 때 지도층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곧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므로 포로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이방 족속 가운데 뛰어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신 28:1).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의 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

바벨론 왕은 융화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로 잡아 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흠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간 그 나라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발탁돼 왕궁에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지요.

이것은 포로 된 자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긴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적인 율법의 준행이 중요했기에 우상의 제물이나 가증한 식물(食物)을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감독관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대신 채식만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락을 받습니다. 일단 10일 동안 채식을 한 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지요. 과연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을 좇아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한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들 중에서 왕을 모시는 자들로 뽑히게 되었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했지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포로 신분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겠는지요? 포로 신세로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닌 데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히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선하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판단해 가볍게 여기며 그 뜻을 거스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준행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다른 것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선하신 뜻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행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을 알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의무감으로 행하기도 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지켜가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세월이 흐르고 지위가 높아져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이방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곧 세상적이고 향락적이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곧은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는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 2.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마음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바벨론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지요. 그러나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은 노하며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금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지요. 또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회유와 협박으로 세 사람의 의지를 꺾어 보려고 합니다.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풀무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우상 앞에 절단코 절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왕에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히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을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선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높게 살 수 있는 선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11:30 AM 2부 3:00 PM
주일 저녁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p><b>십자가의 도</b>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p>	<p><b>천국(상·하)</b>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p>	<p><b>지옥</b>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p>	<p><b>믿음의 분량</b>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p>
---	---	--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브르,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겠다는 참으로 비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나 그리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없이 있을 것을 깊은 선 가운데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행할 바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시험이 왔고,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지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혹여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어서 시험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한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나도 축복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 되길

원하는데, 왜 이처럼 형통하지 못할까?' 하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나도 열심히 심고 충성했는데 왜 내게는 축복이 더딘 것일까?' 하며 서운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함으로 기도 응답받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서운할 리도, 낙심할 리도, 절망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심고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자체로 족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기에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얻기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지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자녀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안겨 주시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오히려 평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주심으로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충분히 세 사람을 건져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풀무 불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지요. 세 사람이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를 선 가운데 보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연단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 심은 것에 족히 여기며 변함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불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었다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 능력이 주어져 자녀 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이 더러움을 씻어 주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씻기는 것을 나타낸 외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물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 죄성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 질병이 틈타거나 가정과 일터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세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불세례를 받으면 질병은 물론 마음의 죄성까지도 태워 영육 간에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까지도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보호받아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지요. 원수 마귀 사단이 성령의 불에 접하면 그 능력을 상실해 마치 죽

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담이 있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불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불세례를 받아 마음의 죄성을 태우고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강건해지고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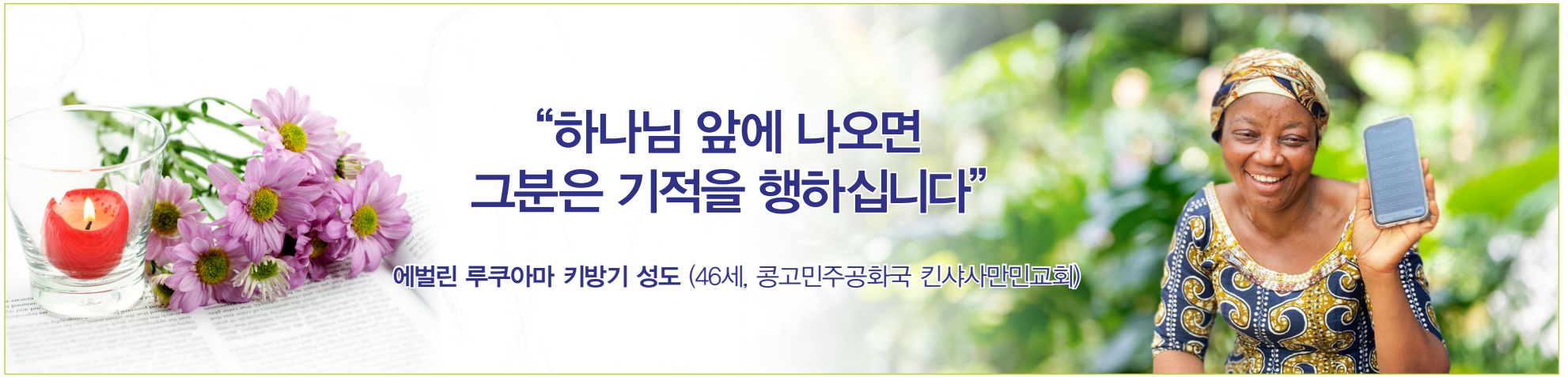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통해 죄의 담을 헐고 성령 충만함은 물론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이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해 모든 질병이 태워지고 죄악들이 벗어지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세례는 하나님 능력의 차원이기에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며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의 향을 날마다 쌓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능력, 곧 불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니 만사형통한 복도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성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에벌린 루쿠아마 키방기 성도 (46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2021년 4월, 저는 이스라엘 형제의 전도를 받아 킨샤사 만민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한진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했고 참된 사랑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만민의 양 떼가 되었지요.

제게는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눈이 가렵고 때로는 심하게 부었으며 시야가 뿌옇게 보였지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아도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때문에 일상 생활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복님 원

장님 초청 랜선 은사 집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은사 집회 시 치료받자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읽고 싶어요. 제 눈을 치료해 주세요요!”라고 간구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7일, 랜선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복님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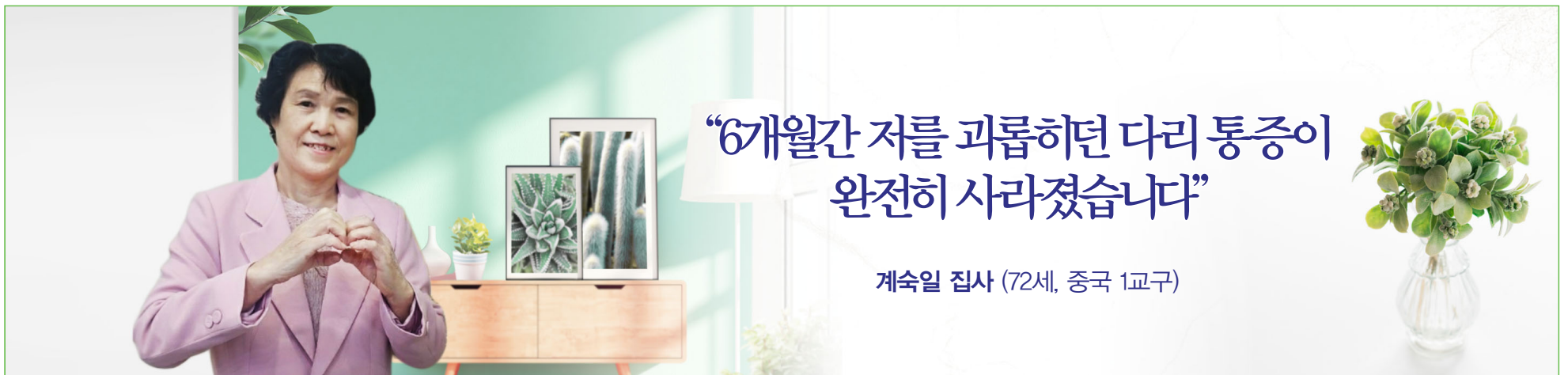
두 차례 매우 밝은 빛이 마치 제 눈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강렬하게 지나갔고 두 번째는 빛이

제 눈을 비추었지요. 그 뒤 작은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눈에 아무 이상 증세가 없고, 깨끗하게 잘 보이니 무슨 일을 하든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는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품으세요. 문제가 있는 분들, 마음 문을 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요.

제 눈을 치료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6개월간 저를 괴롭히던 다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숙일 집사 (72세, 중국 1교구)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저는 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위와 장이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니 체중이 40kg까지 되었지요. 목과 팔, 허리는 늘 아파서 파스를 달고 살아야 했고 두통이 너무 심해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두통은 물론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버스도 탈 수가 없었지요.

이런 고통 중에 살아가던 제가 2003년 8월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한 후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아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체중도 55kg이 되었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에서 일하는데, 주변에서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힘도 세다며 마치 3, 40대 같다고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던 2022년 1월, 또 한 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

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7월 9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30일에 2차 접종까지 했는데 아픈 다리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었고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어서 방바닥에 앉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펴서 앉아 했지요.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 의자에 앉아 기도해야 했고, 일터에서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다리 통증이 이렇게 6개월이 지나 2022년 새해를 맞으니 1월 은사 집회 때에는 치료받아야겠다고 결단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1일, 저는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GCN 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찬양을 할 때에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있었

지만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였지요. 그러자 마음에 감동이 임했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니 6개월간 저를 괴롭히던 다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예전처럼 걷고 뛰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웃도 전도하여 매주 함께 예배드리며 갈무리하는 등 부구역장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지요.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